

빛으로 채운 사랑

20대의 대부분을 성장을 위해
홀로서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작은 생명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피스한 손길로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대공원을 데리고 다녔던 이모님은
그렇게 두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오랜 유학생활을 마치고
10여년만에 그렇게 재회할 수 있었다.
희미한 기억속에 자리잡고 있던
어린이절의 향수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살아난다.

피스한 햇살을 머금은 아이의 미소는
오랜시간 가슴속에 묻고 지내왔던
그 어린 아련한 감성들을 자극하고 있었다.
지난세월 벗어나고자했던
긴 어둠의 터널만큼이나
이제는 삶을 돌아보고
함께하는것에 기쁨을 찾아가고 싶다.

정일권
일본사천예술전문학교 초상사진과 졸업, 도쿄디자인전문학교 비주얼디자인과 졸업
블로그 <http://blog.naver.com/sg80350>

